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까’의 의미와 문법화

구종남*

|| 차례 ||

- I. 서론
- II.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축약형 ‘-다니까’의 종결어미화
- III. ‘-다니까’의 문법화와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종결어미 ‘-다니까’의 문법화 과정과 그 의미 기능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니까’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태, 통사적 특성이 달라진다. 이런 ‘-다니까’를 하나로 보고 접근하는 방법은 그 실제 규명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니까’를 ‘-다니까1’, ‘-다니까2’, ‘-다니까3’ 등 3가지로 나누어 그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을 논하였다. ‘-니까’는 추론적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다니까1’을 바로 이런 ‘-니까’에 추론 논리에 기초하여 문법화된 종결어미로 보았다. 즉, ‘A다. 그러니까 B겠다.’의 추론 형식에서 A가 화자의 기존의 경험에 의한 앎과 관련된 내용이고 B가 화자가 접하는 상황이 될 때 실제 발화상에서 이 추론 형식이 기반이 되어 ‘-다니까1’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문법화 원리로 ‘-다니까1’ 구문의 여러 가지 의미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한편 ‘-다니까2’는 ‘-고 하-’가 회복될 수 있고, 후행절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의미 기능이나 허용하는 문장형에서 단순한 인용 축약형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를 준종결어미라 보았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전 발화에 대해 보이는 청자의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태도에 대해 화자가 불만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니까2’는 비명시적인 이유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바, 이는 화자의 이전 발화에 대해 보이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불만의 이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니까2’는 ‘-냐니까’, ‘-라니까’, ‘-자니까’와 형태도 가능하며 ‘-다니까1’, ‘-다니까3’과는 달리 시제 어미의 통합에 제약이 없다.

‘-다니까3’은 ‘-다니까2’에서 더 문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니까2’는 화자가 이전에 발화한 내용에 대해 청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바, ‘-다니까3’은 이런 청자의 부정적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청자의 부정적 반응의 이유를 불식시키려는 담화 전략에서 문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니까3’은 청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영역으로 확대되어 쓰인다. 어떠한 경우든 ‘-다니까3’은 ‘-니까’의 기원적 의미로 인하여 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막연한 이유를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축약형 ‘-다니까’의 각기 다른 세 가지 문법화를 문맥적 재해석, 합류, 분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다니까’, 문법화, 종결형, 추론, 이유(원인), 결과, 종결어미화

I. 서론

국어의 종결어미는 ‘-거든’, ‘-고’, ‘-는데’ 등 연결어미에서 기원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연결어미에 기원을 두고 있는 종결어미는 인용 접속 문에서 기원한 축약형이 종결어미화된 것도 있다. ‘-다니까’, ‘-다면서’, ‘-다니’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들 인용 축약형 종결어미 중 ‘-다니까’가 종결어미로 문법화되는 과정과 그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축약형 ‘-다니까’의 문법화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으나 (이필영 1993, 이금희 2006 등) 이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것이 아직 많

이 남아 있다. 종결어미 '-다니까'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고 이들 각각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때 '-다니까'가 보이는 형태, 통사적 특성도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다니까'는 그 문법화 과정이나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그간의 '-다니까'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를 세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다니까'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사전의 의미 기술은 충분하지 않고 실제와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복합적 성격을 지닌 '-다니까'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이의 의미 기능과 문법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축약형 '-다니까'에서 '-다'는 원래 '-니까'가 결합된 절과는 별개의 절에 속하는 문장의 종결어미이므로 '-다니까'는 '-니까'와는 달리 어떤 사태를 후행 사태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종결어미화된 '-다니까'도 축약형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이의 의미 기능에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용 축약형에서 종결어미화된 '-다니까'를 그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그 문법화와 의미 기능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들 형태의 각기 다른 문법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종결어미 '-다니까'의 의미 기능에 구조적 특징과 '-다니까'에서 연결어미 '-니까'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밝혀질 것이며, '-다니까'가 왜 발화시에 주어진 사태를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시 이전의 사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설명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다니까'의 의미 기능에 대한 원리적이고 통합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다니까'의 의미 기능뿐 아니라, '-다니까'의 형태·통사적 특징도 밝혀질 것이다. 이 논의는 역시 '-다니까' 외에 연결어미 '-라/자니까'의 문법화 과정도 포함하며, 또한 같은 인용축약형 종결어미인 '-다면서', '-다니'에 대한 문법화 과정

과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에서는 인용축약형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종결어미화된 여러 가지 ‘-다니까’ 형을 살펴본다. 3에서는 종결어미화된 ‘-다니까’를 3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을 논의한다. 4는 결론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다.

II.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축약형 ‘-다니까’의 종결어미화

2.1.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국어에서 주술 구성을 갖춘 형식이 문장이 되려면 종결어미가 필수적이다. 종결어미는 문장과 관련된 문장 후행의 언어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문장형과 양태, 경어법 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종결어미는 어미구조체라고 할 수 있는바,¹⁾ 이들 기능은 그 구성 요소에 의해 실현된다. 이 중 양태적 기능은 종결어미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문장형과 경어법은 이들 어미구조체에 의해 결정된다. ‘-습니다’, ‘-느냐’, 등 전형적인 종결어미는 모두 문장 종결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갖는 모든 어미가 문장 종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되어 쓰이는 형태는 문장 종결소를 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든’, ‘-는데’, ‘-고’ 등은 연결어미로 쓰이지만 종결

1) 어미구조체는 선행어미, 청자높임소, 문장종결소 등 여러 의미소로 구성되는 바, 이들 중 어떤 것은 결여될 수도 있다(이태엽 1998:173).

어미화된 것이기도 하다. 통사적으로 후행절을 요구하며 의미적으로 후행절과 관련을 맺게 하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통사적으로 후행절을 요구하는 기능을 잃었다는 것과 대신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획득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 어미가 쓰인 절 뒤에 후행절이 올 수 있는지의 여부인바, 후행절이 설정될 수 없다면 이 어미는 당연히 종결어미로 의미 기능이 변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어미들은 전형적 종결어미와 달리 문장종결소를 결하고 있으므로 종결어미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의 실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이들은 고유한 경어법 관련 형태소를 결하고 있어 그 자체로 반말체 기능을 수행하고, 그 자체로 문장형을 나타내는 기능이 없어 주로 평서형이나 수행 억양에 의해 의문형으로 쓰인다. 또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는 본유적 종결어미와는 달리 연결어미적 의미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양태적 의미도 나타내게 된다.

한편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변화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용의 접속문에서 인용표지 '-고'와 인용동사 '하-'가 생략되어 만들어진 축약형에서 기원된 것도 있다. '-다니까', '-다니', '-다면서'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이들은 '-다고 하니까', '-다고 하면서', '-다고 하니'와 같은 구성에서 인용표지 '-고'와 포괄적 인용동사 '하-'가 생략된 축약형이 종결어미화한 것들이다. '-다니까'는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형태지만 이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다니까'가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 기능을 갖고 각기 다른 문맥에서 쓰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다니까'가 하나가 아니라 각기 다른 문법화 과정을 거친 본질상 상이한 것들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니까'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2. ‘-다니까’의 세 형태

‘-다니까’ 형태는 일차적으로 (1나)와 같은 구조에 나타난다.

- (1) 가. 정희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주가 약을 사왔어.
- 나. 정희가 아프다니까 진주가 약을 사왔어.

(1가)는 ‘-니까’ 접속문의 선행절이 인용문을 갖는 경우다. (1나)는 인용표지와 인용동사 ‘-고 하-’가 생략되어 축약형 ‘-다니까’가 쓰인 형식이다.²⁾ ‘-다고 하니까’가 쓰인 접속인용문 (1가)와 축약형 ‘-다니까’가 쓰인 (1나)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축약형이 쓰인 절은 (2)에서처럼 선행절과 도치되어 쓰이거나 (3)에서처럼 선행절이 생략되어 쓰이는 수도 있다.

- (2) 진주가 약을 사왔어. 정희가 아프다니까.
- (3) A: 진주가 약을 사왔어.
- B: 정희가 아프다니까?

표면상 ‘-다니까’ 뒤에 후행절이 이어지지 않는 (3)의 ‘-다니까’를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다니까’는 축약형 연결형태일 뿐이다(줄고 2018 참고). 이 경우는 후행절에 올 수 있는 내용이 맥락에 주어져 있어 외현적으로 ‘진주가 약을 사왔어.’가 회복될

2) 국어에서 인용문을 가진 접속문에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축약 양상에 대한 논의는 줄고(2018)를 참고하기 바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속문 구성의 축약형 '-다니까'와는 다른 '-다니까'가 있다.

- (4)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재는 아빠만 좋아한다니까.
- (5) A: 철수는 어떻게 됐어?
B: 태수는 벌써 내려갔다니까.
- (6) 그 녀석이 전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속상하다니까.

(4)에는 '-다니까' 뒤에 이어질 수 있는 후행절을 설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다니까'도 '-다고 하니까'로 복원될 수 없다. 또한 이때 '-다니까'의 의미는 '-다고 하니까'의 의미 기능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니까'는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갖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인용 접속 구성에서의 축약형 '-다니까'와 다른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결어미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의 '-다니까'는 (4)와는 기능이 다르다. (5B)의 '-다니까' 문장은 선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것이다. 이런 문맥을 가정하면 (5B) 뒤에는 '내 말 못 들었어?', '왜 또 그걸 물어?' 등과 같은 발화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청자의 발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이들을 '-다니까' 절의 후행절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별개의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후자로 본다면 이 경우 '-다니까'도 종결어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됨.)

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이후부터 <고려대>)에서 이런 경우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5B)와 같은 '-다니까'로 끝나는 형식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언어 형식이 '-다니까'가 통합된 형식과 무관한 독립된 문장이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장은 ‘-다니까’에 이끌리는 형식과 무관하다고 볼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이 경우 ‘-다니까’에 후행하는 문장은 ‘-다니까’ 절의 후행절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문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다니까’에서 ‘-고 하-’가 복원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결코 (5B)의 뒤에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이 독립된 문장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다고 하니까’가 이끄는 형식은 인용 접속문의 선행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6)을 살펴보기로 한다. (6) 뒤에는 생략된 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6)에서는 당연히 ‘-다니까’가 ‘-다고 하니까’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다니까’는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다니까’는 단순히 발화 내용과 관련된 이유를 비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발화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4)와 (6)의 ‘-다니까’는 확실히 이들 뒤에 후행절이 올 수 없으며 ‘-다니까’가 ‘-다고 하니까’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종결어미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5)의 ‘-다니까’는 후행절 설정 가능성이 유동적이어서 이들과 차이가 있으나 종결어미로 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까’의 의미 기능이 (4)에서는 어떤 사실의 확인과 관련되고, (5)에서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표출과 관련되며, (6)에서는 확인도 아니고 부정적 태도도 아니며 어떤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 행위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종결어미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다니까’를 3가지로 구분하여 (4) 유형의 ‘-다니까’를 ‘-다니까1’로, (5)의 경우는 ‘-다니까2’로, (6)의 경우는 ‘-다니까3’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들이 각기 다른 의미 기능을 갖는 이유는 서로 다른 문법화 과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들 각각의 ‘-다니까’ 형에 대하여 그 문법화 과정

과 의미 기능을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를 통해 '-다니까'의 의미 기능에서 '-니까'의 의미가 어떻게 표출되며 '-다니까'는 '-다고 하니까'의 축약형 인바, 구성상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하는 요소가 문법화되어 한 문법 형태소가 될 때 그 의미적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Ⅲ. '-다니까'의 문법화와 의미

3.1. '-다니까1'

3.1.1. 먼저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 (7) 가. (정희가 엄마 대신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정희는 착하다니까.
- 나. (시내를 걸으면서 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니까.
- 다.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재는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위 예문에 쓰인 '-다니까'는 아래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고 하-'가 환원될 수 없으며 후행절 설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니까1'이라고 할 수 있다.

- (7)' 가. (정희가 엄마 대신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정희는 착하다고 하니까. (∅)
- 나. (시내를 걸으면서 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고 하니까. (∅)

다.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재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

(7)에 쓰인 ‘-다니까’는 표준국어대사전(이후부터 <표준>)에서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 쓰는 종결어미’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경우 ‘-다니까’가 어떻게 종결어미로 문법화되었는지, 그리고 사전의 의미 기술은 타당한지를 밝히는 것과 나아가 문법 형태의 의미가 어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니까’의 의미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한 ‘-다니까’는 구조상 별개의 절에 속하는 요소가 문법화한 형태인바, 이런 사실이 이 형태의 의미 기능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다니까’가 인용 구조에서 나왔다는 점과 ‘-니까’가 인과관계의 추론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니까’의 문법화와 의미 기능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다니까’ 문장이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은 ‘-니까’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추리를 어떤 명제에서 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며 문자적 의미로 추리를 어떤 이유(reason)를 보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유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는(강재운 1985: 23-24) 사실에서 기인한다.

(8) A: 미자가 혼자 설거지를 하기로 했다.

B: 미자가 착하다니까/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설거지를 한다고 할 수 있지.

위의 예에서 B의 ‘-다니까/다고 하니까’에 의해 이끌리는 절은 A의 발화 내용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때 ‘-다니까’는 그것이 제시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 간접적인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전해들은 사실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담화 문맥에서 (8B)의 '-다니까' 절 뒤의 내용(후행절)은 기본적으로 A의 발화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될 수도 있다. '-다니까' 절만 나타나도 문맥상 후행절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행절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든 '-다니까'는 화자가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담화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사태의 이유를 추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³⁾ (8B)에서 '-다니까'로 끝나는 문장 뒤에 오는 언어적인 추론 부분 없이 (8B)만으로 위의 담화 상황에서 추론적인 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니까'가 문법화되어 종결어미화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을 암시 받을 수 있다.

'-니까'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 인과관계의 표현으로는 'A니까 B다'의 형식으로 쓰인다. (8B)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추론의 과정이 언어적으로 드러난 형식이다. 즉, A라는 사태(이유) 사태와 B라는 사태(결과)가 언어적으로 표출된 형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니까'에 의한 인과관계가 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순수한 내적인 추론 과정만을 생각할 수 있다. 화자가 어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B를 직접 접할 경우 화자는 그 사태의 이유를 내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때의 화자의 심리적 과정을 인과관계의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B다. 그러니까 A다'와 같은 것이 된다. 즉, 화자가 인과관계의 두 사태 중 결과 사태 B를 인지하게 될 경우 그는 이 결과의 원인이 A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⁴⁾

위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예컨대 인과관계에 있는 두 명제 관계에서

3) 인과적 관계에서 '-니까'가 추론적 이유 제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은 '3시에 출발했으니까/*아서 6시에 도착할 것이다.'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같은 이유를 나타내지만 '-아서'는 이런 추론적 이유를 나타내지 못한다.

4) 추리(추론)에서 증거가 항상 결론보다 먼저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곽강제 1984:32).

명제 A가 ‘불을 때다.’이고 명제 B가 ‘방이 따뜻하다.’일 경우 이들의 관계를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니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불을 때니까 방이 따뜻하다.

형식화: A니까 B다.

만일 화자가 A, B 사태 중 실제 상황에서 ‘따뜻하다(B)라는 사태만을 접할 경우 화자는 ‘-니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0) (방이 따뜻하다.) 그러니까 불을 피웠겠다.

형식화: B다. 그러니까 A겠다. (B니까 A겠다.)

물론 이런 과정은 심리적인 과정이다.⁵⁾ 본고에서는 ‘-다니까’의 문법화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니까’의 추론 기능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11) 가. 정희가 착하니까 설거지를 한다.

나. 정희가 착하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다.

(11나)는 ‘-니까’가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에 결합되지 않고 이유(원인)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앞에 온 접속부사 ‘그러니까’에 결합된 경우 인바, (11가, 나)는 형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⁶⁾ 그 이유는

5) 논증은 언어적 실체(linguistic entity)이지만(곽강제 1984: 25), 추론은 추리의 심리적 과정을 가리킨다(강제론 1985:3).

6) 장경희(1993:350) 참조.

‘그러-’가 지시하는 대상이 ‘정희는 착하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든 원인(이유)과 결과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⁷⁾

여기서 만일 화자가 인과관계로 가정되는 두 사태 중 결과를 상황으로 접하게 되면 그는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2) 가.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정희가 착하니까.

(12)는 주어진 결과를 보고 이유를 추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화자는 (13)과 같은 추론 형식을 택할 수 있다.

(13)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정희가 착하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다.

(11)을 통해 주장했듯이 (13)과 (12)는 동일한 추론 기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다만 (13)에서는 상황으로 주어진 결과를 다시 언어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9), (10), (11)은 두 명제의 인과관계가 관념적으로 가정된 것이며, 따라서 이 추론에서의 원인 명제와 결과 명제는 시공간적 상황상 중립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들은 화자의 경험 및 구체적인 추론 상황과 유리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니까’에 의해 인과관계의 추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A 사태인 원인의 내용이 이전 경험에 의해서 얻게 된 얽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상황을 화자가 접할 경우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추론 방식은 역시 형식상으로는 (13)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다시 써 보기로 한다.

7) 원인과 이유의 차이에 대해서는 장경희(1993) 참고.

(13)' (정희가 혼자서 설거지를 보고) 정희가 착하다(화자의 앞).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다.

(13)과 (13)'가 다른 점은 후자에서 '정희가 착하다.'는 화자가 상황을 표현하는 발화가 아니고 화자가 이전 경험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앞의 형식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화자는 그가 접하는 상황을 그의 이전 경험에 기초한 앞과 인과적으로 관련하여 추리한다. 본고에서는 '-다니까'의 문법화가 바로 이러한 '-니까' 구문의 추론(방식)에서 나왔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13)'과 같은 화자의 내적 추론이 분명하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자가 그의 이전 경험을 통한 앞(정희가 착하다.)과 관련된다고 보는 사태(정희가 설거지를 한다.)를 접했을 때 화자가 그의 기존의 앞을 현저하게 인과적으로 드러내면서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물론 이는 (11나)의 추론 방식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⁸⁾ 이를 염두에 두고 (13)' 형식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잉여성이 존재한다. 즉, 위 추론 형식에서 후행의 '(정희가) 설거지를 한다.'는 상황에 주어진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잉여적인 것이 된다. 또한 '그러니까'의 대용 표현 '그러-'도 '정희가 착하다.'와 동일한 것이므로 잉여적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후행절과 '그러-'가 생략되면 의존형 '-니까'가 결합될 수 있는 숙주는 기존의 앞의 문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추론 과정이 경제적인 언어적 방식으로 도출되는 문장은 (14)와 같이 된다.

(14)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정희가 착하다니까.

8) 우리는 위의 추론 방식이 그대로 언어적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 즉, '미자가 착해.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지.'와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앞이 드러나지 않고 잉여성을 가진 표현이며 '-다니까'와도 무관한 표현이므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물론 이 문장에 쓰인 '-다니까1'은 실제로는 (13)'에서 직접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의 문장은 발화된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므로 '-니까'가 앞의 종결어미 '-다'에 직접 결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위의 '-다니까1'이 앞서 보인 다른 '-다니까'와는 상이한 의미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그 존재의 독자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접속 구성에 쓰이는 인용 축약형 '-다니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4)에서 '-다니까1' 형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위 예문에서의 '-다니까1'의 기능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추론 형식인 (8B)와 같은 문장에서 쓰이는 '-다니까'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매개체를 통하여 (14)와 같은 '-다니까1'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예의 '-다니까'가 비록 형태는 기존의 것을 빌려왔지만 이 형태가 쓰이는 문맥 구조는 그 의미 기능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구조다. (8)에서 간접적인 정보가 어떤 사태를 추론하는 '-다니까'('-다고 하니까')의 예를 살펴보았는바, (13)'의 '-다니까'의 문장의 추론 과정도 위 예와 비슷하다. 다만 앞 (8)에서는 '-다니까'에 도입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이지만 이 경우는 화자의 내적인 앎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결과 사태를 보고 추론하는 간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같다. 위의 경우에 '-다니까' 형이 쓰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예 (14)에 통합된 '-다니까' 형은 인용 축약형 '-다니까'와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되었다. 즉, 이 경우 '-다니까'는 인용 축약형과는 달리 '-고 하'가 회복될 수 없고 뒤에 후행절이 상정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형태, 즉 접속 기능을 갖는 축약형 '-다니까' 형과는 다른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2.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법화된 형태인 ‘-다니까1’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갖게 된다.

첫째, 발화시에 접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앎을 진술한다. ‘-다니까’ 문장은 화자가 접하는 사태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즉, (14)에서 화자가 접하는 상황은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사태이지만 화자가 착한 상태가 아니다. 그렇지만 화자는 기존의 화자의 앎의 문장을 제시한다.

둘째, 단순한 과거의 앎의 문장을 진술(재현)함을 넘어 상황을 해석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다니까’가 현 사태 예컨대 (14)에서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사태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문장으로 치환해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접하는 사태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다니까’는 화자가 접하는 사태의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14)에서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넷째, 과거의 앎의 내용을 현 상황을 통해 확인한다. 화자는 ‘-다니까’를 통해 그가 접하는 사태를 직접 진술하지 않고 그의 앎을 기술하는바, 이는 과거의 앎의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화자는 정희가 청소를 하는 것을 통해 그녀가 착하다는 화자의 앎을 다시 확인한다.

3.1.3. ‘-다니까1’이 (13)’의 추론 과정을 통해 후행절 생략과 ‘-그러-’의 생략에 의해 문법화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과 같은 ‘-다니까’가 결합된 문장이 화자가 과거에 경험적으로 얻게 된 기존의 ‘앎’과 관련된 문장이라고 주장했는데, 먼저 이는 화자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니까1’이 쓰일 수 없다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

(15) (처음으로 만나 인사한 사람이 키가 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키가 크다니까.

(16) (처음 들어간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집 음식은 참 맛있대니까

위에서 '-다니까1'이 통합된 문장 내용은 화자가 이전부터 갖고 있는 앎의 내용이 아니다. 이 경우 '-다니까1'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는 '-다니까'가 결합된 문장 내용은 기존의 앎의 내용이라는 본고의 가정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표준>에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 쓰는 종결어미'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다니까'가 통합된 내용은 얼마든지 발화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술이 아니다.

'-다니까1'이 확인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도 앞서 밝힌 (13)'의 추론 구조에 의한 문법화 방식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다니까1'이 수행하는 확인은 청자를 통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사태를 기존의 앎과 인과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통해서 이루어진다.⁹⁾ '-다니까'의 확인 방식은 '-다니까'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13)와 같이 기존의 앎의 문장을 가정하는 본고의 가정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다니까1'이 이런 방식으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때, '-다니까1'의 경우는 후술되는 '-다니까2'와는 달리 '-냐/라/자니까' 형태가 불가능한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니까1'에는 후술되는 '-다니까2'와는 달리 '았',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9) 이런 점에서 '-다면서'의 확인 기능은 기존의 앎을 환기하는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1.4. 이제 위에서 ‘얹의 문장이라고 불렀던’-다니까’가 통합되는 문장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니까1’ 구문에서는 ‘-다니까1’이 통합되는 절 내용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접하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문장이 아님을 앞서 언급했다. ‘-다니까1’이 결합되는 문장은 실제 화자가 접하는 상황과 논리적으로 직접 관련되지만 실제 상황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다. 즉, 화자가 접하는 상황은 발화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수하다. 예컨대 (13)’에서 화자가 접하는 설거지를 하는 행위는 착한 행위에 속하는 행위의 하나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만일 화자가 친구들과 커피뿐 아니라 차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를 파는 카페에 갔는데 한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고 가정하자. 화자가 이전에 이 친구와 커피숍에 3번 갔는데 그 때 주문했던 것이 커피숍에 간 순서대로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였다는 것을 화자가 기억하고 있다면 화자는 그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저 친구는 커피를 좋아한다니까.’라고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화자가 친구가 전에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적이 있다고 해도 만일 ‘저 친구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니까’를 발화한다면 이는 온전히 타당한 추론에 의한 발화가 아니다. 화자가 전에 친구가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을 본 경험을 통해 그 친구에 대한 취향과 관련하여 온전히 타당하게 추론한 얹은 ‘친구가 커피를 좋아한다.’이다. 이 ‘커피’는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저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가 화자의 적절한 얹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메리카노는 다른 품목을 배제하는 하위어이므로 이 추론이 온전히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화자의 얹의 문장은 화자가 접하는 사태(상황)를 나타내는 문장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3.1.5. '-다니까1' 문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본고에서 가정하는 앞의 문장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다니까'가 통합되는 문장은 발화시 이전에 화자의 앞의 문장으로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제 '-다니까'가 통합되는 '앞'의 성격을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점심 식사를 주로 중국 음식점에서 하는 화자가 음식점에서 화자의 지인이 짜장면 먹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하자. 지인이 이전에도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는 것을 화자가 세 번 보았고 그날은 네 번째로 짜장면 먹는 것을 목격한 날이라면 화자가 '-다니까' 문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앞'의 문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화자는 이전에 친구가 짜장면 먹는 것을 2~3차례 보고 '저 친구가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추론함으로써 경험에 의한 하나의 앞을 기억 속에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경우라면 화자는 지인이 짜장면을 먹는 것을 마지막 네 번째로 볼 때 '저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한다니까.'라고 발화할 수 있다. 이때 '-다니까'가 통합된 문장은 기존의 앞의 문장이 된다. 그러나 화자는 발화시 전까지 '저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한다니까.'라는 내용을 그의 앞에 등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화자는 지인이 짜장면 먹는 것을 세 번까지 보았을 때는 좋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화자는 지인이 짜장면을 값이 싸서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문하면 빨리 나오고 식사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지인이 짜장면을 먹는 이유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로 지인이 짜장면을 먹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지인이 짜장면을 계속 먹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여 '저 친구는 짜장면을 좋아한다니까.'라고 발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다니까'가 통합하는 문장은 기존의 앞의 문장 자체가 아니

라 발화시에 화자가 추론하여 판단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니까1’이 통합된 문장은 반드시 이전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기존의 앎을 나타내는 문장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니까’가 결합된 문장이 발화시에 추론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온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문장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¹⁰⁾

3.1.6. 이제 ‘-다니까1’의 문법화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니까’의 기원을 생각하면 이는 표면상 이전에 존재하던 인용 축약형 문법 형태가 기능이 전혀 다른 문법 형태로 문법화된 것이다. ‘-다니까’는 인용 접속 구문의 ‘-고 하니까’의 축약형인바, 이는 ‘동수가 아프다니까(/고 하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셨다.’와 같은 진술과 ‘엄마가 왜 걱정을 하셨냐?’는 질문에 ‘미자가 아프다니까(/다고 하니까).’와 같은 대답에서 쓰이는바, 이 경우 ‘-다니까’는 연결형으로 쓰이는 것이다. (14)에서 쓰인 ‘-다니까1’은 그 형태의 구성 요소가 위의 인용 축약형 ‘-다니까’와 동일하나 그 의미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축약형 ‘-다니까’와 표면상 동일한 ‘-다니까1’이 축약형과는 기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문법화된 것은 ‘-다니까1’의 경우는 축약형이 쓰이는 전형적인 문맥과는 다른 문맥에 놓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문법화의 원리 중 문맥적 재해석(context-induced reinterpretation)으로 설명된다고 본다(Heine 1994).

한편 ‘-다니까1’은 ‘-다고 하니까’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다’와 ‘-

10) 물론 위의 상황에서 화자는 발화시에 ‘저 사람은 늘 짜장면을 먹는다.’라고 추론하여 ‘저 사람은 늘 짜장면을 먹는다니까’라고 발화할 수 있다. 이때 이 추론 문장도 ‘늘’이라는 부사를 고려하면 앎의 문장은 역시 화자가 실제 접하는 사태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까'는 서로 다른 절에 속하는 성분들이다. 그러나 '-다니까1'은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어 이해되지 않는다. 이 형태는 축약을 거쳐 형태소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융합형이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까1'의 문법화는 Lehmann(1982)의 문법화 원리 중 결합성의 증가로 인한 합류(coalescence)의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1.7. 문법화된 '-다니까'는 어떤 사태에 직면하여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사태와 논리적으로 관련된 이전의 얹의 문장이나 이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추론될 수 있는 문장에 결합되어 현 사태의 이유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현 사태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내적으로 확인하는 종결어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니까'가 사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정보의 입수 경위를 나타내는 증거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도 설명된다.

3.2. '-다니까2'

3.2.1. 먼저 예문을 보기로 한다.

- (17) 가. (통닭을 사 온 것을 보고) 나 통닭 안 좋아한다니까.
 나. (빨간 넥타이를 사 온 것을 보고) 동수는 파란색을 좋아한다니까.
 다. 아 글썄, 내말이 맞다니까.

위 예들에서는 '-다니까2'가 쓰였다. 앞서 보았듯이 <고려대>와 이금희(2006)에서 이 경우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위와 같은 형식 뒤에 후행 내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¹¹⁾ 위의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이금희(2006)에서는 ‘-다니까2’ 문장 뒤에는 ‘아까 말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믿고 그래?’와 같은 유형의 후행절이 있었을 텐데¹²⁾ 이들이 청자와 화자 사이에 공유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되고 이들이 가진 ‘불만’의 의미가 선행절에 ‘전이’되어 ‘-다니까’가 종결어미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예들에서 ‘-니까’ 뒤에는 후행절이 가능하며 ‘-다니까’는 ‘-다고 하니까’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후행절의 ‘불만’ 내용이 ‘-다니까’의 의미로 전이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불만’은 ‘-니까’의 자체의 의미가 아니며 이 ‘-니까’ 구문이 쓰이는 담화 문맥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필영(1993)에서는 ‘-다니까2’는 ‘-다고 하니까’로부터 융합된 비환원적 융합형인 종결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다니까2’를 융합형으로 보면서도 상위문 동사 ‘하-’의 기능과 형태적 특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런 ‘-다니까’ 구문을 복문구조의 통사적 구성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는 이 경우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니까’가 단문 구성을 이룬다고 보는 이금희(2006)의 견해와 다르다.

이필영(1993)에서 ‘-다니까2’를 종결형으로 봄으로써 연결형과는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는바, 여기서 ‘-다니까2’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이것이 인용 축약형 연결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11) 장경현(2012)에서는 이와 같이 후행절이 이어질 수 있는 종결을 열린 종결이라고 한다.

12) 이들 후행절이 실제로 나타날 때 ‘-니까’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소위 ‘계기적 관계’를 나타낸다(장경희 1993 참고).

(18) 엄마: 정희야, 통닭 사왔다. (먹어라.)

정희: 나 통닭 안 좋아한다니까/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위 예문에서는 '-다니까'가 '-다고 하니까'로 환원될 가능성도 있고 '정희'의 발화 뒤에 '왜 통닭을 사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라?'와 같은 발화가 후행절로 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본고에서는 이 경우 '-다니까2'를 종결어미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위 (18)과 같은 '-다니까'는 '-다고 하니까'의 축약형 '-다니까2'와 다른 점이 있다.

(19) 가. 내가 통닭을 안 좋아한다니까/다고 하니까 엄마가 피자를 사오셨다.

나. 엄마가 피자를 사오셨다. 내가 통닭을 안 좋아한다니까/다고 하니까.

다. (엄마가 피자를 사온 상황에서) 내가 통닭을 안 좋아한다니까/다고 하니까... (엄마가 피자를 사 왔네?)

(19)는 '-다니까(-다고 하니까)'가 연결형으로 쓰인 경우로서, (19나)는 '-다니까' 구문이 도치되어 쓰인 것이며 (19다)는 후행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황으로 주어진 경우다. 그런데 축약형 '-다니까2'가 연결형으로 쓰일 때 접속문의 문장형에는 제약이 없다.

(20) 가. 미자가 온다고 하니까/온다니까 {너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너 기분이 좋니?, 너 밥 먹지 말고 기다려, 너도 같이 가자.}

그러나 (17), (18)과 같은 '-다니까2'가 쓰인 예문은 전형적인 인용축약

형 연결형과는 다르다. ‘-다니까2’ 뒤에 오는 표현은 그것이 후행절이 되었던 별개의 문장이 되었든 서술형만 가능할 뿐 의문이나 명령, 청유의 형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다니까2’가 통합된 문장은 화자에 의해 이전에 발화된 문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나(이필영 1993, 이금희 2006) 축약형은 화자의 발화일 필요는 없다. 한편 ‘-다니까2’ 구문은 선행 발화가 없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바, 등교할 시간에 엄마가 꾸물대는 아들에게 ‘학교 늦는다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이 발화 뒤에는 ‘왜 꾸물대?’와 같은 문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니까2’가 결합된 내용은 이전에 발화된 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니까2’가 통합된 문장은 상황상에서 판단한 일반적인 화자의 믿음일 수 있으며 화자의 이전 발화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니까’가 통합된 앞선 발화가 없더라도 ‘-다니까2’가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당연히 ‘-고 하-’ 회복이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다니까2’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니까2’는 인용 축약형 ‘-다니까1’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다니까2’는 ‘-다니까1’과 같은 완전히 문법화된 종결어미는 아니지만 종결어미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 이를 준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2. 이제 ‘-다니까2’의 형태,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니까2’가 통합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¹³⁾ 화자에 의해 이전에 발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 발화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될 수 있다.

13)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학교에 늦는다니까.’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고려해서이다.

(21) 가. 너 밥 먹었냐니까?

나. 그만 먹으라니까.

다. 이제 일어나자니까.

사실 위의 발화는 화자가 이전에 발화한 문장 그대로는 아니지만 문장 형은 동일하다. 한편 '-라니까', '-자니까'는 <표준>과 <고려대>에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으나 '-냐니까'는 <고려대>에만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다니까'는 통합되는 문장이 시제어미 제약을 받지만 (21가)에서 확인되듯이 '-다니까2'는 시제어미 제약을 받지 않는다.

3.2.3. 이제 '-다니까2'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에는 '-다니까2'의 의미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고려대>에는 '앞서 발한 것에 대해 청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미심쩍어할 때 화자가 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거나 강조하여 알려 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형태가 인용문 구조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다니까2'가 쓰인 문맥에서 어떻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니까'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다니까2'의 의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가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니까2' 뒤에는 후행절이 설정될 수 있으며 '-다니까2' 구문은 화자가 자기의 선행 발화를 청자가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때(이필영 1993:138), 바로 이 불만 내용은 후행 표현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용 접속형태 '-다고 하니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가) '나 통닭 안 좋아한다니까'를 인용 접속문으로 환원시킨 '나 통닭 안 좋아한다니까 왜 통닭을 사왔어?'에서 '-니까'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때 '-니까'는 '계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¹⁴⁾

‘-다니까2’ 구문(17가)는 상황에 대한 이해 불가에서 기원하는 불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여기서 ‘-니까’는 앞서 보인 축약되기 전의 ‘관련 사실 후속 설명의’ 즉 계기 관계(장경희 1993)의 기능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후행절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후행절 생략으로 ‘-니까’는 어떤 이유를 드러내는 기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니까’는 드러난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 비명시적인 이유다. 그것은 청자의 반응에 대한 불만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내가 이전 발화를 통해 얘기했는데 현재 화자가 직면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니까2’에는 인용 접속구문에서의 ‘-니까’의 계기 관계적 의미의 흔적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니까2’의 ‘-니까’는 그 어원적 의미인 이유와 계기 두 가지 모두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다니까2’가 나타내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 비명시적인 이유가 되는 까닭은 바로 선행 발화의 일부분에 속하는 ‘-다’의 존재 때문임이 당연하다. 이런 설명은 ‘-다니까2’에 대한 사전적 처리나 이전 논자들이 제시하는 ‘-다니까2’의 의미 기능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3. ‘-다니까3’

‘-다니까3’이 쓰인 문장은 다음 예에서 보듯이 ‘-고 하-’가 회복될 수 없고 후행절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14) <표준>에서는 ‘-니까’를 ‘-니’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니까’가 원인(이유)의 의미 외에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경희(1993)에서는 후자를 ‘계기관계’로 보고 있다.

15) 이 의미는 감정 양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2) 가. 누나, 백만원만 빌려줘. 이번에는 빨리 갚는다니까/*갚는다고 하니까

나. (밭에 고추모를 심는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 비가 온다니까/*온다고 하니까.

다. 어찌나 바쁘던지 밥도 못 먹었다니까/*못 먹었다고 하니까

'-다니까3'은 '-고 하-'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후행절도 올 수 없다는 점에서 '-다니까2'와 다르게 화자의 경험에서 기인되는 화자의 앓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니까1'과 다르다. 예들에 쓰인 '-다니까'가 무엇보다도 후행절이 상정되지 않으며 준종결어미로 보았던 '-다니까2'와 같은 청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니까3'은 완전한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니까3' 형식은 어떻게 이런 종결어미가 되었을까?

본고에서는 '-다니까3'은 '-고 하-'의 환원 가능성이 유동적이고 후행절이 설정된다고 해도 이것이 오직 상대방 행위가 기대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극히 제한된 절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준종결어미로 보았던 '-다니까2'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본다. 앞서 보았듯이 '-다니까2'는 화자가 청자에게 이전에 한 말을 고려할 때 이해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화자가 그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다. 이를 담화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 A1: 누나, 백만원만 빌려 줘.

B1: 너 돈 잘 안 갚잖아.

A2: 이번에는 빨리 갚을게.

B2: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안 빌려 줄 거야.

A3: 이번에는 빨리 갚는다니까 {왜 그래?, 내 말을 안 믿네?}

위 대화에서 A3에 쓰인 ‘-다니까’는 ‘-다니까2’에 해당한다. ‘-다니까2’는 이에 선행하는 화자의 발화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는바(위 대화에서는 A2), B2에서 확인되듯이 청자가 화자의 이전 발화에 대해 그의 기대나 의도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 쓰는 것이다. 이는 A3의 ‘-다니까’ 뒤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위의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돈을 빨리 안 갚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것을 예상하고 청자가 거부하는 그 이유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발화를 하는 경우, 즉 청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면서 경제적으로 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화자는 청자가 자기의 담화 전략을 이해하리라고 가정한다. 이런 전략의 실현은 실제적으로는 위 담화 상황에서 몇 단계 발화를 삭제하는 것이 된다. 즉, B1-A2-B2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생략된 부분은 화용상으로 이해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화자가 담화상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23)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4) A1: 누나, 백만원만 빌려 줘.

B1: ∅

A2: ∅

B2: ∅

A3: 이번에는 빨리 갚는다니까.

위 대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는 A 뒤에 바로 A3이 이어서 나타나 ‘누나, 백만원만 빌려줘. 이번에는 빨리 갚는다니까.’가 된다. 이런 발화 상황을 고려하면 ‘-다니까’가 통합된 문장 내용은 이전에 발화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 ‘-다니까’ 문장에서 ‘-다니까’가 ‘-다고 하니까’로 복원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결과 '-다니까' 뒤에 이어지는 화자의 불만의 태도를 나타내는 '왜 그래?', '내 말을 안 믿네?'와 같은 후행 표현도 나타날 수 없게 된다. 즉, 이런 담화 전략에 따른 구문에서는 '-고 하-'가 환원될 수 없고 후행절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다니까'가 종결어미로 문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담화 전략에서 나온 '-다니까3'은 기원적으로 '-다니까2'와 같은 것이지만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이것이 놓이는 문맥이 다르므로 앞서 밝힌 확실한 종결어미로서 범주적 변화뿐 아니라, 의미상에서도 변화를 겪게 된다. 이 경우 '-다니까3'은 이것이 통합된 문장이 발화되지 않아 이에 대해 청자가 불만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불만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니까3'은 기본적으로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는 것이다. 이제 '-다니까3'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살펴보기로 한다.

(24)에서 '-다니까'는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이유를 비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니까'의 이유의 의미가 '-다니까3'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요컨대 '-다니까3'은 어떤 사태를 진술하면서 이유를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다니까3'은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어 상대방에게 청자의 말에 대해 화자가 보일 부정적인 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쓰인다.

(25) 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니까.

나. 그 애가 오랜만에 전화를 한 거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위 예문에서 '-다니까'는 청자의 부정적 반응을 대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며 모두 기본적으로 진술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니까’는 ‘이유’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다니까3’ 구문의 선행절이나 선행문은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이유가 ‘-니까’에 직접 통합되지 않아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니까3’은 (25)와 달리 선행하는 언어적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도 쓰인다.

- (26) 가. (핸드폰을 계속 찾는 친구에게) 아까 네 가방에 넣었다니까.
나. (밥을 급히 먹는 아들에게) 밥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니까.

이 경우도 ‘-다니까3’은 청자의 부정적 반응을 대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진술의 기능을 나타낸다.

한편 ‘-다니까3’은 서술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명령형과 청유형으로도 쓰인다.

- (27) 가.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아내에게) 내가 늦는 날은 혼자 먹으라니까.
나. (내말은 사실이야) 내기를 하자니까?

(27) 예들도 단순히 청자의 부정적 반응을 대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27가) ‘-라니까’는 명령을, (27나)의 ‘-자니까’는 청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¹⁶⁾ (26), (27)의 ‘-다니까3’이 청자의 부정적 반응

16) (27)의 ‘-라니까’, ‘-자니까’는 명령, 청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니까’는 직접적으로 어떤 서법(문장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이에 선행하는 종결어미가 문장형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을 대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26), (27)에서도 ‘-다니까3’은 막연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니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니까3’은 ‘-다니까2’에서 문법화가 더 진행된 것이다. 원래 문법 형태소였던 ‘-다’와 ‘-니까’가 융합에 의해 ‘-다니까1’, ‘-다니까2’, ‘-다니까3’과 같이 의미 기능적으로 다른 문법 형태가 되는 것은 문법화 원리 중에서 분화(divergence)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인용의 접속문에서 쓰이는 ‘-다고 하니까’의 축약형 ‘-다니까’는 연결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종결어미로도 쓰인다. 본고에서는 종결어미 ‘-다니까’의 문법화 과정과 그 의미 기능을 고찰하였다. 그간의 몇몇 논의에도 불구하고 종결어미 ‘-다니까’에 대해서는 그 문법화 과정이나 그 다양한 의미 기능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니까’는 의미, 형태, 통사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이를 단일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실제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다니까’를 ‘-다니까1’, ‘-다니까2’, ‘-다니까3’ 등 3가지로 나누어 그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을 논하였다. ‘-다니까’를 이렇게 세분한 것은 이것이 여러 상이한 의미 기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형태, 통사적 특징도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니까’는 추론적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니까1’은 바로 이런 ‘-니까’에 추론 논리에 기초하여 문법화된 종결어미로 보았다. 즉, ‘A다. 그러니까 B겠다.’의 추론 형식에서 A가 화자의 기존의 경험에 의한 앎과 관련된 내용이고 B는 화자가 접하는 상황이 될 때 실제 발화상에서 이 추론 형식이 기반이 되어 ‘-다니까1’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

리고 이때의 ‘-다니까1’은 4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니까2’는 사전과 다른 논의에서 종결어미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고 하’가 회복되어 ‘-다고 하니까’로 나타날 수 있고 후행절이 상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종결어미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형태다. 그러나 이 형태는 상정될 수 있는 후행절 문장형이 제약되고 그 내용도 발화에 대한 기대 부정이나 불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연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 하니까’의 축약형 ‘-다니까’와는 다르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준종결어미라 보았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전 발화에 대해 보이는 청자의 태도에 대해 화자가 불만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니까2’는 이유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 바,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고 비명시적인 이유를 드러낸다. 즉, ‘-다니까2’는 화자의 이전 발화에 대해 보이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불만의 이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니까2’는 ‘-냐니까’, ‘-라니까’, ‘-자니까’와 형태도 가능하며 ‘-다니까1’, ‘-다니까3’과는 달리 시제 어미의 통합에 제약이 없다.

‘-다니까3’은 ‘-다니까2’에서 더 문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니까2’는 문장의 발화자가 이전에 발화한 내용에 대해 청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고 했는바, 본고에서는 ‘-다니까3’은 청자의 부정적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청자의 부정적 반응의 이유를 사전에 불식시키려는 담화 전략에서 문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다니까3’은 청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영역으로 확대되어 쓰이며 ‘-라니까’, ‘자니까’ 형으로도 쓰인다. ‘-다니까3’은 직접 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니까’의 기원적 의미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본고에서는 ‘-다니까’의 세 가지 방식의 문법화를 문맥적 재해석, 합류, 분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강재륜, 『신논리학』, 1985, 대왕사.
- 곽강제 역, 『논리학』, 1984, 박영사.
- 구중남, 「인용접속문의 축약 현상 연구」, 『국어문학』 제66집, 국어문학회, 2017, pp.125-155.
- _____, 「국어의 연결어미 독립절(단편문)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p. 91-120.
- 김태엽,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제22집, 한국언어학회, 1998, pp.171-189.
- 이금희,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국어학』 제48집, 국어학회, 2006, pp.238-258.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1998, 한국문사.
- 이필영, 『국어 인용구문 연구』, 1993, 탑출판사.
- 임홍빈,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역양」,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제9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4, pp.147-182.
- 장경현, 「연결어미에서 기원한 종결어미의 의미 연구, ‘-고/-는데’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38집, 한국어의미학회, 2012, pp.109-134.
- 장경희, 「[-다니까]의 의미와 그 해석 - [-어서]와 대비하여 -」, 『선청어문』 제2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3, pp.337-367.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ews, D. H., *Morphology*, 19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Meanings and Grammaticalizations of ‘-Tanikka’

Koo, Jong-nam

Grammaticalization and meanings of ‘-tanikka’ (다니까), sentence final ending,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Tanikka’ has some distinct meanings. However, its meanings and reasons why it has some distinct meanings remain unclear. I divided ‘-tanikka’ into three types (‘-tanikka1’, ‘-tanikka2’, ‘-tanikka3’) according to their meanings and discussed the processes of their grammaticalizations. Meanings of ‘-tanikka’ can be explained on the ground of grammaticalization processes.

‘-Tanikka1’ is grammaticalized by virtue of inference meanings of ‘-nikka’, a connective ending. ‘-Tanikka2’ can be treated to be a quasi-sentence final ending which is not completely grammaticalized. Its main meaning is to represent speaker’s complaint suggesting the reason. ‘-Tanikka3’ is completely grammaticalized from ‘-tanikka2’ whose function is to emphasize and suggest reasons why speaker utters the sentence. The grammaticalization principles of ‘-tanikka’s can be attributed to context-induced reinterpretation, coalescence, and divergence.

Key word : ‘-tanikka’(다니까), grammaticalization, inference, contraction, cause, result, final ending

구종남

소속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jnkoo@jbnu.ac.kr

이 논문은 2019년 8월 19일 투고되어
2019년 9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9월 20일 게재 확정됨.

